종단·사찰 종무행정 편의성 개선

228회 임시회 조계종 종법 이렇게 바뀝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 제228회 임시회서는 총 11개의 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종헌 개정안 연동법인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구본사주지와 관련된 지방종정법·산중총회법 개정안은 이월됐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많은 종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변화된 종법 내용을 정리했다.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상시'로

연 2회(2월·8월)로 규정하고 있는 중앙종회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상시적으로 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다. 의정활동의 장기간 공백을 막기 위해 중앙종회의원 궐위 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궐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말사주지 품신권 악용 불가

그동안 사설사암 주지후보자는 창건주 권리자가 교구본사주지에게 추천서를 보내면 본사주지가 총무원장에게 품신해야 했다. 특히 말사 주지가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말사주지를 품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이유로 주지 품신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더 이상 말사주지 품신권을 악용할 수 없도록 사찰법과 지방종정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구본사주지가 말사주지 품신 신청을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지 않은 경우,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자는 교구본사를 거치지 않고 총무원 총무부에 말사주지 품신을 신청할 수 있다.

사찰 특별회계 타회계로 전출 가능

사찰의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는 전출할 수 없었다. 특히 직영상가, 템플스테이, 영구위패 사업 등에 관련된 특별회계는 매년 수익금이 적립되면서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출이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찰예산회계법이 개정됐다. 이제는 종령에서 정한 특별회계는 타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또한 사찰등급 8등급 이상인 경우 종무 및 경리·회계담당 종무원을 둬야 한다.

불가피한 은사 이연 가능하게

은사가 환계 또는 탈종한 경우 도제가 은사로부터 지도와 교육,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존 종법에선 '퇴속'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승려법이 개정됐다. 이제는 사미·사미니의 경우 사승이 사망, 환속, 환계, 탈종, 제적, 멸빈으로 인해 승려의 분한을 상실했을 때는 다른 사승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비구·비구니는 사승이 환속, 환계, 탈종, 멸빈으로 분한 상실했을 때 새로운 사승을 정하고 사승의 재적본사로 이적할 수 있다.

문화재구역입장료 감면에 따른 변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문화재보유사찰 대부분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감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안들이 개정됐다. 감면에 대한 보조금은 '불교문화유산 지원금'으로 명명했으며, 관람료분담금은 '문화유산분담금'으로 변경됐다.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에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제17조) 부분을 신설하고 교육불사 지원금 등을 명기했다. 더불어 연동되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에 우봉 스님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소사 해박한 경험 갖춰"



조계종 총무원 신임 기획실장에 前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이로써 제37대 집행부 2기 부실장 진용은 모두 갖춰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우봉 스님에게 기획실장 임명장을 전달하고, 종단 발전을 위한 역량 발휘를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우봉 스님이 종단 각 주요 소임을 봐왔고, 종책 입법에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직할사찰 주지로서 종단의 행정과 포교 등 여러 면에서 능력을 보여 기획실장 소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누구보다 종단 대소사에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만큼 종단의 내실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능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우봉 스님은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역량을 다해서 종단과 총무원장스님, 종도들을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했다.

우봉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 수계했다.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과 호법국장, 사서실 사서국장, 기획실 감사국장, 영랑사·문수사·호압사 주지를 역임했다. 제16·17·18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제17·18대 중앙종회사무처장을 지냈다. 현재 화계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200명 출가 시대 열겠다"…출가장려위 출범

진우 스님, 9월 8일 위촉장 수여
위원장 혜일 스님 등 10명 위촉
종단적 대중 공의 형성 등 추진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종단 기구인 '조계종 출가장려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현재 불교는 '출가 절벽 시대'를 맞이했다. 조계종 출가자 수는 2000년 528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지난해는 61명만이 출가했다.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연간 출가자 100명 선이 붕괴된 것이다.

사실 조계종은 2010년대에 들어서며 출가 홍보 사업을 진행해왔다. 출가 홍보 홈페이지 신설부터 출가상담사 운영, 청년출가학교, 출가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지만 출가가 확대로 이어지진 못했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출가 장려 사업에 대한 책임이 승가교육 행정 기구인 교육원에 집중돼 있었던 점도 큰 문제 중 하나였다. 출가 장려 대상은 재가 청년불자이기 때문에 포교 사업과의 연계가 필수였지만, 이 같은 연계가 눈에 띄게 이뤄진 적은 없었다. 그렇기에 출가자 확대를 위한 종단적 '출가 TF' 구성이 제안돼 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는 '발등의 불'이 된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종단적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출가장려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장 혜일 스님을 비롯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37대 집행부 핵심 종책을 다루는 미래본부 산하로 구성되는 출가장려위원회 위원으로는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덕현 스님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정운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지우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 △쌍계총림 쌍계사 율감 승덕 스님 △전국비구니회 문화포교부장 동환 스님이 참여한다.

출가장려위원회는 출가자 감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출가 장려를 위한 대중공의 형성, 관련 종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원·포교원·군종교구·한국불교문화사업단 등 각 종무기관 출가 관련 사업 공유와 협의도 진행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출가장려위원회를 오래 전에 구상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용을 갖춰 공식 출범하게 됐다"면서 "출가자 확대는 정말 필요한 종책 과제임에도 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위기 속에서 지혜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만큼 위원들이 합심해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가장려위원장 혜일 스님(해인사 주지)은 "교육원장으로 재직 당시 출가 장려 정책을 최우선 종책으로 상정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옮기게 됐다"면서 "여러 위원스님들과 함께 총무원장스님의 뜻을 받들어 출가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교육원장에 취임하면서 '5년 내 연간 출가자 200명 시대를 열겠다'고 발원했다. 출가장려위원장으로서도 '연간 출가자 200명 시대'를 5년 내로 열겠다는 발원을 다시 세우고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위원스님들도 출가 장려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은 "군종병 출가자들도 적지 않다. 이를 감안하면 군포교는 출가의 황금어장이기도 하다. 이를 감안해 출가 장려 정책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덕현 스님은 "출가 장려 정책에 대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포교분과위원장 정운 스님은 "30년 동안 청소년 포교를 하며 생긴 노하우를 위원회 활동에 접목해 종단 출가 장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기금 5000만원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남북 불교문화유산 연구에 박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교류연구위원회 발족

최태선 등 전문가 10명 위촉
北 8대 본산 등 콘텐츠 연구



남북 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학계 전문가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가 남북 불교문화유산 관련 콘텐츠 발굴·개발을 위해 교류연구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추본은 9월 13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 회의실에서 '남북 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위원회'를 발족,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불교미술, 불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민추본의 2021~2022년 금강산 평화순례길 연구사업과 2022 남북 결연사찰 연구조사를 함께 진행한 연구진이기도 하다. 위원으로 강호선 성신여대 사학과 부교수,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박순 경북불교문화원 상임이사, 천명희 국립안동대 국문학과 교수, 최태선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문화재전공 교수, 김성연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초빙교수, 유근자 동국대 미술학부 초빙교수,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현수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 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향후 남북 불교문화재 교류, 사찰 간 교류 협력 등 유무형의 다양한 남북 불교문화유산 교류 콘텐츠 연구한다. 특히 북한의 8대 본산을 포함한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남북한 불교계가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축적할 계획이다.

이날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본부장 태효 스님을 대신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용태 교수는 "조선시대 불교사를 전공했는데, 북한의 불서 조사가 평생의 꿈이다. 교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깊이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유근자 동국대 교수는 "신계사 복원 당시 지표조사부터 함께했다. 금강산 불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허정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금강산 관련 연구를 통해 북한 불교와 사찰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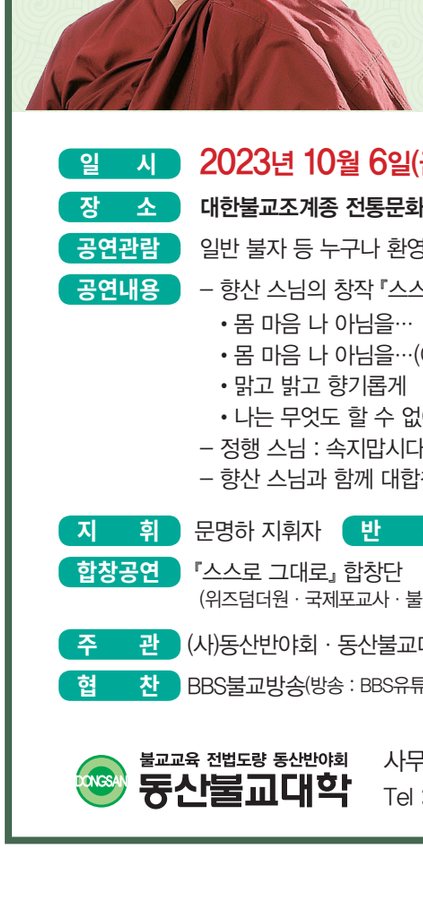
위원 위촉식에 이어 1차 위원회 회의가 비공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최태선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올 하반기와 내년 연구 주제 및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김내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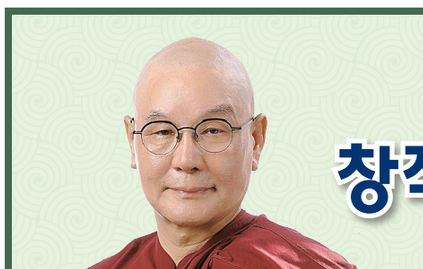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제6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음 9.17) 오후 2시 ~ 4시
■ 장 소 :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5D~5E홀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범석수불 대율사 (전,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갈마아사리 관허수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교수아사리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 및 교수사)
존증아사리 심산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존증아사리 원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존증아사리 혜성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만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 051)501-7554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향산 스님의 창작 깨달음의 노래 발표회

향산 스님이 『스스로 그대로』 절명상 수행을 하면서 떠오른
깨달음의 경구에 노랫말을 붙여 창작한 노래를 공연합니다.

일 시 2023년 10월 6일(금) 오후 5시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문화예술공연장(조계사 내)
공연관람 일반 불자 등 누구나 환영
공연내용 – 향산 스님의 창작 『스스로 그대로』의 노래 5곡 발표
• 몸 마음 나 아님을…
• 몸 마음 나 아님을…(아리랑)
• 맑고 밝고 향기롭게 • 속지맙시다
• 나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 정행 스님 : 속지맙시다 / 그리운 금강산
– 향산 스님과 함께 대합창
지 휘 문명하 지휘자 반 주 KMJ밴드
합창공연 『스스로 그대로』 합창단
(위즈덤더원·국제포교사·불일·밝힘·동산불교대학 연합합창단)
주 관 (사)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사)클리어마인드절명상센터
협 찬 BBS불교방송(방송 : BBS유튜브 실시간 방송, BBS불교방송 예정)

특별출연
소프라노 정행 스님



『스스로 그대로』 합창단 공연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732-1206~8 Fax : 02)732-1207 http://www.dongsnabud.net